

고문운동에서 도학으로

-한훤당 김굉필을 통해 본 조선 전기 유학의
사상적 전환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원석

寒暄堂 金宏弼(1454[단종2]-1504[연산군10])

- 退溪 李滉의 평가
 - “近世道學之宗”(『退溪集』卷12, 「答盧仁甫」)
 - 스승 金宗直은 문장학, 김굉필은 節義의 學.
- “사람들이 나라 일을 물으면 그는 반드시 ‘『小學』 읽는 동자(童子)가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라고 대답했다.(南孝溫1454-1492, 『師友名行錄』). 『小學』 중심의 실천학(이상성, 2007)
-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 (1484년, 김종직과 김굉필 사이에 정치적 이견 발생.)
- 1498년 무오사화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 조원강의 아들 趙光祖(1482-1520)에게 학문 전수.
- 연구의 어려움 : 김굉필이 직접 지은 문장이 대다수 일실됨.

최근 연구성과

- 김용헌(2011) : 「秋毫可竝於泰山賦」의 非주자학적 성격 지적.
- 추제협(2014) : 김종직의 학문도 『小學』 위주의 실천적 도학.
- 정출현(2015) : '문장=김종직, 도학=김굉필'의 이분법에 문제제기.
- 우경섭(2016) : 김굉필의 위상은 후대 송시열 등 서인에 의해 재조정됨.
- 김훈식(2015), 황위주(2015) : 김굉필의 철학적 저작 「寒氷戒」의 위작 가능성 제기.

발표의 중점

- 고문(古文)운동으로부터 도학(道學)으로 이행.
- 원나라 노재 허형(魯齋 許衡, 1209-1281)의 『小學』론과 비교.

한훤당 김굉필의 초년 행적 분석(奇大升의 김굉필 「行狀」, 약1570년 作)

선생이 처음에 점필재 김 선생에게 글 배우기를 청하니, 김 선생이 『소학』을 주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풍제월(光風霽月)의 높은 인격을 이루는 것도 또한 이 밖에 있지 않다.” 라고 하니, 선생이 명심하여 손에서 『소학』 책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시나 시사(時事)에 관하여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소학』 읽는 동자가 어찌 대의를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일찍이 시(詩)를 지어 이르기를 “『소학』 글 속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다.” 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점필재 김 선생이 이를 비평하면서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노재(魯齋; 許衡) 이후에 어찌 제승할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하였다.” (김굉필 21세)

• 분석

- 후대의 김굉필 평가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글.
- 김굉필 사후 약 60년 만에 이뤄진 『경현록』 편찬에 즈음하여 작성됨.
- 김굉필은 21세(1474년)에 郭承華와 함께 배우러 나아 감.(김굉필의 「연보」)
- 김종직은 김굉필에게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소학』의 도학적 수양법을 가르침.
- 김종직은 『소학』 공부와 “광풍제월(光風霽月)”, 허형(許衡)을 연결시켰다고 함.
- 성리학적 전통이 김굉필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함.

「점필재선생연보(佔畢齋先生年譜)」 19세 조

“일두 정여창(一蠹 鄭汝昌)과 한훤(寒暄) 김굉필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함께 선생(김종직)의 문하에 와서 배우기를 청하니, 선생은 옛사람이 배운 차례를 따라 가르쳐서, 먼저 『소학』과 『대학』을 읽히고 마침내 『논어』와 『맹자』를 읽게 하였다. 그들은 날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윽고 강령과 종지를 알고 나서 도의(道義)를 연구하였다.”

• 분석

- 김굉필은 관승화가 아니라 정여창과 함께 김종직에게 배우러 감.
- 김종직 측은 김굉필의 21세가 아니라 19세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
- 김종직은 특별히 『小學』을 강조하지 않음.
- “광풍제월” 및 “허형”에 대한 언급도 없음.

남효온의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김굉필(金宏弼)은 자(字)가 대유(大猷)이며, 점필재(佔畢齋)에게 수업하여 경자(更子, 1480)년에 생원이 되었다. … 손에서 『소학(小學)』을 놓아본 적이 없었고 파루를 친 뒤에야 침소에 들었으며 닭이 울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라 일을 물으면 그는 반드시 “『소학』 읽는 동자(童子)가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일찍이 시를 지어서 “문장을 업으로 하였지만, 아직 천기를 몰랐는데, 『소학』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다.” 라고 했다. 점필재 선생이 평하기를,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노재 이후에 어찌 계승할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하였으니 그를 이처럼 존중했다. 그는 나이 서른 살이 넘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었으며 후진을 가르침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 분석

- 남효온은 김굉필의 친우(親友). (후일, 김굉필은 남효온의 '竹林羽士' 결성을 질타, 의절.)
- 남효온의 「사우명행록」은 김굉필의 행적을 보여주는 가장 초기의 작품.
- 김굉필이 언제부터 김종직에게 배우기 시작했는지 밝히지 않음.
- 김굉필이 김종직으로부터 『小學』을 배웠다는 언급이 없음.
- 김굉필은 『小學』 공부와 “天機” 개념을 연결시킴.
- 김종직은 김굉필과 노재 허형을 연결시키고 있음.
- 김종직은 김굉필의 학문적 성과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뭇.

- 남효온 : 김굉필은 독자적으로 『소학』 공부를 시작. 김종직은 추인.
- 이 적 : 김굉필은 사마시 합격한 이후 독자적으로 『소학』 공부를 함. 김종직의 추인.
- 기대승 : 김굉필은 김종직으로부터 『소학』 공부를 배우고 성리학으로 회심.
- 점필재선생연보 : 김굉필이 19세에 김종직으로부터 『소학』 뿐만 아니라 『대학』, 『논어』, 『맹자』를 배움.

문인 이적(李績, 생몰년 미상)의 김굉필의 「행장」

일찍부터 글을 잘한다는 명성이 있어, 경자년(1480년)의 사마시에 합격하고 크게 분발하여 문장가에 관한 공부에 힘썼는데, 『소학』을 읽다가 곧 깨달고 시를 짓기를 “『소학』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다.” 라고 하니, 점필재가 평하기를,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노재 이후에 어찌 제승할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하였다.

• 분석

- 1480년 이전에 김종직으로부터 배웠다는 내용 누락.
- 『小學』 공부는 사마시 합격 이후, 27세 이후에 시작.
- 점필재는 역시 사후 추인의 역할에 머물.

김종직이 21세의 김굉필에게 지어준 시

10년[성종 5년] 갑오(1474)[선생 21세]. 이해 늦은 봄에 점필재가 김굉필과 곽승화 두 수재(秀才)에게 답하는 시(詩)가 있는데, “벽지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사람 만났으니!”라고 하였으니, 이때 선생이 처음으로 점필재의 문하에 갔던 것이다.(김굉필의 「연보」)

• 김종직이 21세의 김굉필에게 지어준 시(김종직의 「연보」)

벽지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사람 만났으니! / 窮荒何幸遇斯人.

진주 보배 가져와 난만히 펼쳐 놓았구나. / 珠貝携來爛漫陳.

어서 가서 다시 한리부(한유)를 찾아보게. / 好去更尋韓吏部.

노쇠한 나는 아직 곳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 愧余衰朽未傾困

분석

“어서 가서 다시 한리부(한유)를 찾아보게. / 好去更尋韓吏部.

노쇠한 나는 아직 곳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 愧余衰朽未傾困”

- 한리부 = 韓愈(768-824)
- “노쇠한 나는 아직 곳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 나는 한유만큼 “도덕(道德)”을 깊이 쌓지 못했다.
- “어서 가서 다시 한리부(한유)를 찾아보게.”
 - 김굉필이 한유의 글을 배우기 위해 김종직을 예방했음을 암시.

김종직, 김굉필, 그리고 한유

• 김일손(金駟孫)의 사례

- 김일손은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 문하에서 동문수학.
- 1481년, 김종직으로부터 한유의 문장을 배움.
- 김종직은 김일손에게 “조정은 문(文)을 중시하니 『창려집』(한유의 문집)을 많이 읽게.”라고 함.

• 류자광(柳子光, 1439-1512)의 김종직에 대한 평

- “其卒也, [子光]爲文以哭之, 比諸王通韓愈.”

• 김굉필과 한유

- “[한훤당] 선생은 어려서부터 호걸스럽고 ...『창려집(昌黎集)』을 즐겨 읽었다.”
- 1482년 경, 김종직은 한유에게 “한유의 「送窮文」을 배우지 말고, 장차 宋玉의 「風賦」 같은 글 짓기를!”이라고 당부. 김굉필은 1482년(29세)까지도 한유를 배우는 데 매진.

소결

- 김굉필은 한유의 문장을 배우기 위해 김종직을 찾아 감.
- 20대의 어느 시점에서 『소학』의 중요성을 김종직으로부터 배움.
- 한유의 문장을 위주로 한 과거시험 공부와 『소학』 공부를 20대 후반까지 병행.
- 29세 이후 『소학』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내용을 시로 남김.

김종직과 광풍제월(光風霽月)

- 김종직 :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풍제월의 높은 인격을 이루는 것도 이 밖에 있지 않다.”
- “광풍제월” : 송대 주돈이(周敦頤, 1017-1073)를 위해 시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이 사용했던 용어. 광풍제월은 “쇄락(灑落)”의 하위 개념. “쇄락 ”은 “자연 ”의 경지.
- “광풍”은 ‘부드럽게 비추는 봄의 빛으로 온화함’, “제월”은 ‘맑은 가을 하늘에 뜬 달로 엄격함’을 상징. 안연(顔淵)은 전자, 이윤(伊尹)은 후자의 대표적 인물.
- 주돈이는 관료로서 엄격했고, 은둔자로서 탈속을 추구: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通書』)
- “光風霽月” “春風, 孤月”, “高遠瀟灑, 靑雲秋月”등의 표현은 소식(蘇軾), 황정견, 조변(趙抃), 문동(文同) 등의 문인 그룹이 지향하던 경지.
- 김종직은 1479년 충청남도 금산에 경렴정(景濂亭)을 세우고, 연(蓮)을 심음.(주돈이의 「愛蓮說」)

『소학』과 광풍제월

“시서육예(詩書六藝)는 모두 경술이요 시서육예의 문(文)은 바로 그 문장이다. 진실로 그 문에 따라서 이치를 궁구한다. 정밀하게 살피고, 여유롭게 그 속에서 헤엄친다. 그러면 이치[理]가 문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융회(融會)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발산하여 언어(言語)와 사부(詞賦)가 될 터이니 스스로 잘하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잘 될 것이다.” (『佔畢齋集文集』 卷1)

분석

- “시서육예” : 주희에 따르면 “시서육예 ” 는 소학(小學)의 공부 내용.(「小學題辭」). 김종직은, 소학이 곧 경술, 즉 소학은 유가의 주요 경전이라고 강조.
- “이치[理]가 문(文)과 함께 내 마음 속에서 융회한다.” : 주희라면 “이치가 마음과 하나가 된다.”고 했을 것. 김종직은 경술과 문장의 내적 필연성을 강조.
- “잘 하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잘 될 것이다.” : 자연(自然)의 경지에 도달. 소학적 실천을 통해 “자연”의 경지에 도달. 그 결과 도덕실천과 문장에 동시에 능하게 된다는 전망.

조선 전기의 문장론과 김종직

- 고문운동 이전 당대(唐代)의 문장론
 - 文의 보편성 강조(天文, 人文 등).
 - 文의 숙달(습관화, 제2의 본성화)을 통해 文과 하나가 됨으로써 道(自然)에 도달.
- 한유 이후의 문장론
 - 유가적 文(고문, 六經의 문)의 숙달을 통해 그 文과 하나가 됨으로써 道에 도달.
 - 道는 自然이자 儒家的.
- 송대의 도학 : 문장이 아니라 예행(禮行)을 통해 도에 도달해야 함.(정이천)
- 조선전기에는 고문운동가인 한유 및 소식의 영향 시대.(김종직-한유, 성현(成俔)-소식)
- 김종직은 고문운동에서 도학으로 이행하던 과도기의 인물.

‘『소학』과 광풍제월’의 소결

- 『소학』에 규정된 모범적 행위를 반복, 숙달, 습관화, 본성화(제2의 본성)
- 모범적 행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자연)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깨달음.
- 소학의 모범적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
- 소학의 모범적 행위로 인해 “쇄락”(광풍제월)의 경지를 맛봄.

김굉필의 회심과 노재 허형

문(文)을 업으로 하였으나 아직도 천기를 판별하지 못하다가/ 業文猶未識天機

『소학』 속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네./ 小學書中悟昨非

• 분석

- 김굉필은 文을 통해 “天機”를 추구하다가, 『소학』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식에 도달.
 - “天機”는 “自然”.
- 『소학』을 통해 自然에 도달한다는 구도는 김종직과 일치.
- 주희 : 『소학』 공부 다음에 『대학』 공부를 배치. 『대학』 공부 이후에야 自然에 도달.
- 이황의 평가 : ‘김굉필은 尊德性에는 충실했으나 道聞學은 등한시켰다!’

허형(1209-1281)과 『小學』

- 허형: “문(文)에 전념하는 대신 성인의 말씀 속에서 성인의 마음을 체득해야 한다.”
- 『소학』 공부의 목적 : “德性用事(덕성의 구체적 발용)”을 통한 “隨時變易(구체적 시간에 따른 변화)”의 성취.
- “德性用事, 隨時變易” : 소학 공부를 통한 덕성의 회복,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발용.
- 허형과 왕필 : 허형은 청년 시절 왕필을 사숙. 왕필의 “자연” 사상이 허형 주자학의 한 특징(三浦秀一, 2003.)
- 허형 : 『소학』 공부를 통해 곧바로 自然에 도달.

결론

- **조선 전기의 철학에 대한 통념**

-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건국.
- 조선 전기 유학은 성리학 이해의 미숙 단계.

- **여말선초와 고문운동**

- 여말선초에 소동파와 한유의 영향력이 지대 : 성현의 「의동파십론」과 김종직(한유)
- 주돈이의 「애련설」이 유행.
- 목은 이색의 '태극설'에 나타난 도가철학적 특성.

- **여말선초와 원대 성리학**

- 기존 학계는 노재 허형의 성리학을 '실천유학', '묵수(墨守)주자학'으로 규정.
- 북송(北宋) 지역의 유학(구양수, 소식 등)이 허형에게 끼친 영향 고려되어야 함.
- 黃幹(1152-1221) 계열의 성리학자(쌍봉 요씨, 운봉 호씨)가 조선 중기 성리학에 끼친 영향 : 황간(黃幹)과 금화(金華) 성리학이 지닌 특수성이 규명되어야 함. 황간은 理의 유기체성을 강조.

- 북송의 고문운동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학의 노력, 원대 성리학의 특수성에 대한 규명은, 고려와 조선 유학의 사상적 단절과 연속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조선 중기 퇴계와 율곡 등의 성리학을 단지 성리학 이해의 완성 단계로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장[文], 자연, 그리고 유가적 가치의 위계를 어떻게 재배열하고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당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망할 수 있을 것임.

[끝]